



1. 제약/바이오 – 주간 제약업종 지수 현황

- ▶ 지난 한주간(8월 8일~15일) 제약업종 지수는 전주대비 3.1% 하락하였고 KOSPI 수익률대비 1.3%pt 하회
- ▶ 주간 주가 수익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높은 7.6%, 메디톡스가 가장 낮은 -8.1%를 기록
- ▶ 관심종목으로는 동아에스티와 SK 케미칼을 추천함

2. 산업관련 주요 이슈

- ▶ 삼성바이오로직스, 아시아 제약사와 1446 억원 규모 계약 (<https://bit.ly/2w3ygAs>)
 -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공시함
 -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31.1% 규모 계약 기간은 경영상 비밀유지 사유로 내년 12월 31일 이후 공개
- ▶ 삼성바이오로직스, 다케다와 급성 췌장염신약 임상 1상 돌입 (<https://bit.ly/2B3zMIN>)
 -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일본 다케다 제약은 지난해 8월 바이오 신약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
 - FDA에 제출한 임상 1상 시험 신청서 승인 받았으며, 참가자 등록 통해 단회 및 반복 투여 임상시험 진행계획
- ▶ 동아에스티 '스티렌시리즈' 매출 반등 (<https://bit.ly/2MlkQes>)
 - 스티렌의 구원투수로 스티렌투엑스를 투입. 스티렌과 스티렌 제네릭을 스티렌투엑스로 대체하는 영업전략 구사
 - 스티렌의 용량을 늘려 복용 횟수를 줄인 '스티렌투엑스'가 스티렌의 매출을 넘어섰음

제약/바이오 커버리지 업체별 주간 주가 변동

기업	시가총액 (십억원)	주가 (pt, 원)	주가 Performance (%)						
			1D	1W	1M	3M	6M	YTD	
KOSPI	1,459,838	2,259	0.5	-1.8	-2.3	-8.8	-6.7	-8.5	
제약/바이오	152,502	13,852	0.9	-3.1	-7.9	-5.5	-13.7	-3.2	
셀트리온	32,728	261,000	0.2	-4.9	-9.4	2.4	-16.5	18.0	
삼성바이오로직스	30,171	456,000	2.2	7.6	13.4	23.7	4.6	22.9	
셀트리온헬스케어	12,155	86,500	1.4	-4.5	-13.3	-1.5	-27.7	-20.4	
한미약품	4,850	426,000	0.7	-5.9	-5.5	-7.4	-21.3	-27.1	
유한양행	2,753	225,500	0.5	-1.1	-0.2	-2.2	4.9	3.0	
메디톡스	3,796	671,000	0.5	-8.1	-18.4	11.7	10.0	38.4	
휴젤	1,986	455,600	2.8	-3.8	-7.3	-2.2	-20.2	-18.6	
대웅제약	2,178	188,000	1.6	-2.1	-7.4	-4.1	11.2	14.3	
SK케미칼	977	84,400	-1.3	-5.2	-11.3	-13.9	-19.6	-21.5	
동아에스티	849	100,500	1.2	-1.0	10.1	-1.5	-7.4	0.9	

자료: SK증권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리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자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자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

3. 국내 제약/바이오 뉴스 (2018.08.08 ~ 2018.08.15)

- ▶ 삼성바이오로직스, 아시아 제약사와 1446 억원 규모 계약 (<https://bit.ly/2w3ygAs>)
 -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4 일 공시함
 -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31.1% 규모 계약 기간은 경영상 비밀유지 사유로 내년 12 월 31 일 이후 공개
- ▶ 삼성바이오로직스, 다케다와 급성 췌장염신약 임상 1 상 돌입 (<https://bit.ly/2B3zMIN>)
 -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일본 다케다 제약은 지난해 8 월 바이오 신약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계약 체결
 - FDA 에 제출한 임상 1 상 시험 신청서 승인 받았으며, 참가자 등록 통해 단회 및 반복 투여 임상시험 진행 계획
- ▶ 한미약품, 수출신약 상업화 임박 (<https://bit.ly/2nwGDAQ>)
 - 항암제 르론티스 4 분기 미국 허가 신청, 당뇨병약 에페글레나타이드 미국 3 상으로 글로벌 진출 임박
 - 한편 6 월말 기준 총차입금 6000 억원 넘어섰음. 차입금 증가는 글로벌 임상과 R&D 투입 비용이 늘었기 때문
- ▶ 동아에스티 '스티렌시리즈' 매출 반등 (<https://bit.ly/2MlkQesl>)
 - 스티렌의 구원투수로 스티렌투엑스를 투입. 스티렌과 스티렌 제네릭을 스티렌투엑스로 대체하는 영업전략 구사
 - 스티렌의 용량을 늘려 복용 횟수를 줄인 '스티렌투엑스'가 스티렌의 매출을 넘어섰음
- ▶ 첫 RNAi 치료제 '온파트로' 허가 - 1 년 투약비용 5 억원 (<https://bit.ly/2B86DMq>)
 - 앤라일람 파마슈티컬즈의 RNAi 치료제 온파트로가 지난 10 일(현지시각) FDA 허가를 받았음
 - 유전자침묵(gene-silencing) 기술이 적용된 RNAi 치료제를 상용화한 첫 사례에 해당
- ▶ 셀트리온, 휴미라 시밀러 3 상 2020 년 완료 (<https://bit.ly/2OTASiY>)
 - 셀트리온은 CT-P17(휴미라 바이오시밀러)오리지널의 변화된 고농도 제형에 따라 개발 중
 - 2018 년 8 월부터 유럽 등 8 개 국가의 약 75 개 사이트에서 글로벌 임상 3 상도 진행할 예정

4. 글로벌 제약/바이오 뉴스 (2018.08.08 ~ 2018.08.15)

- ▶ 밀란,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자산 매각 계획 중 (<https://bit.ly/2OsMR03>)
 - 매각을 하더라도 인수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회사 전체를 매각하기 어려울 것
 - 밀란은 이미 Morgantown 공장의 문제와 의약품 승인의 지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▶ 중국, 48 개 치료 타깃 리스트 제출 (<https://bit.ly/2B0msVY>)
 - 아직 승인 되지 않은 약품들은 유효성/안전성 면에서 인종적 또는 민족적 차이가 없는 해외 자료와 증거 사용
 - 확인 후 최종적으로 신약 신청서가 우선 검토를 받을 예정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리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자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자료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

▶ 테바 편두통 치료제 다음달 허가 예상 (<https://bit.ly/2npl8lf>)

- 편두통 치료제 생산을 맡은 셀트리온 공장이 7월에 FDA의 검사를 받고 Form 483을 받았음
- 하지만 Form 483에 대한 내용이 허가를 지연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
▶ 노보노디스크, 가격 압박에 직면 (<https://bit.ly/2Myei8i>)

- CEO는 인슐린 약품들이 2개에서 5개로 증가함으로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
- 한편,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매출 성장 둔화 우려가 존재

▶ PBM(보험약제관리 기업) Express Scripts는 처방목록집에서 48개 의약품을 제외 (<https://bit.ly/2Mc8eoO>)

- 매출 규모가 큰 제품 중 애브비 Maviret(C형 간염)과 길리어드 Sovaldi(C형 간염) 및 Atripla(HIV 치료제) 제외됨
- 이에 따라 반사효과로 경쟁 구도에 있던 다른 제품들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으로 판단됨

5. 주요 공시사항

▶ 셀트리온 - 2분기 실적(연결기준)

- 매출액 2,311 억원(+6.9% YoY), 영업이익 1,092 억원(-18.5% YoY), 순이익 750 억원(-34.2% Yo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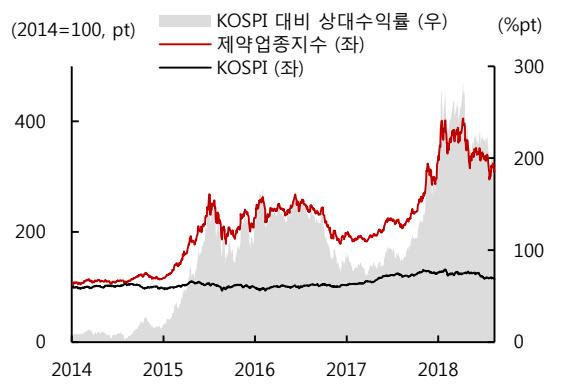
▶ SK 케미칼 - 2분기 실적(연결기준)

- 매출액 3,537 억원(+18.1% YoY), 영업이익 105 억원(-23.0% YoY), 순이익 64 억원(흑자전환 YoY)

▶ 메디톡스 - 2분기 실적(연결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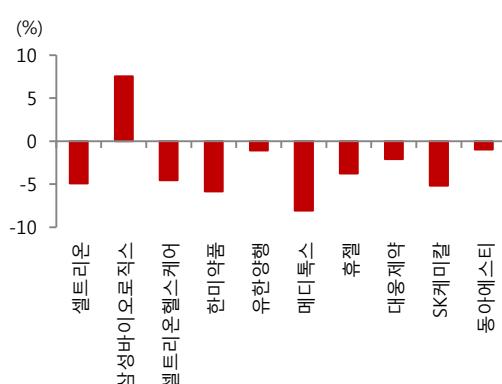
- 매출액 550 억원(+15.8% YoY), 영업이익 226 억원(-14.4% YoY), 순이익 182 억원(-11.2% YoY)

제약/바이오 KOSPI 대비 업종 지수



자료: SK 증권

커버리지 업체별 주간 주가 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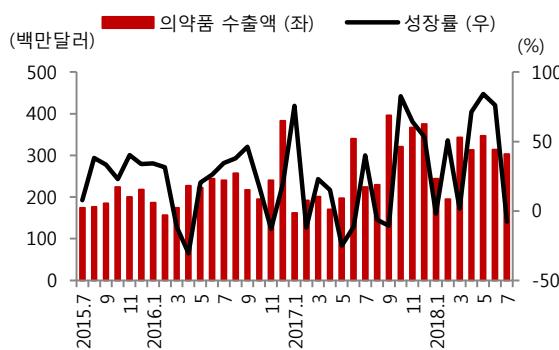
자료: SK 증권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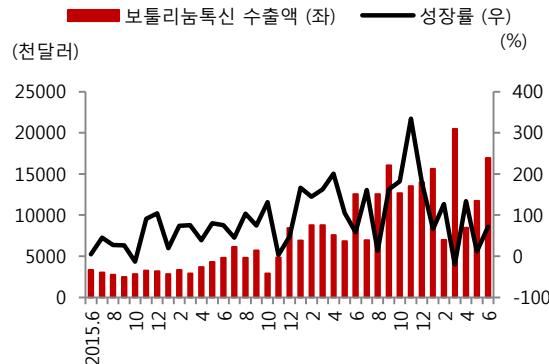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자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자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국내 의약품 수출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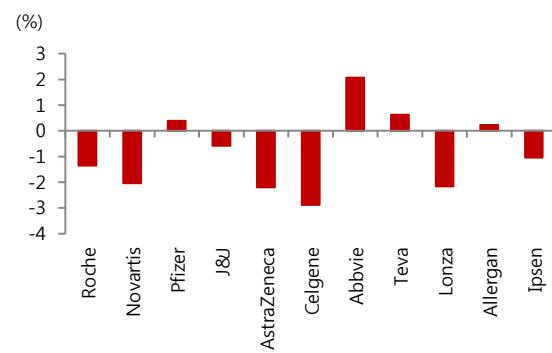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SK 증권

보툴리눔톡신 수출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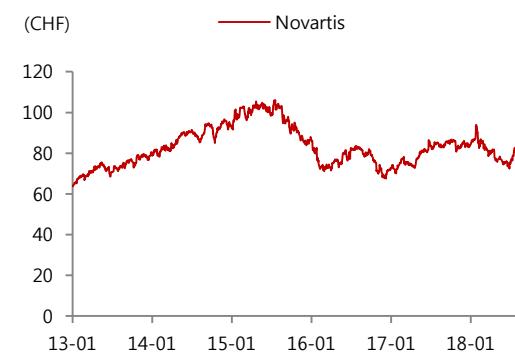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SK 증권

글로벌 업체별 주간 주가 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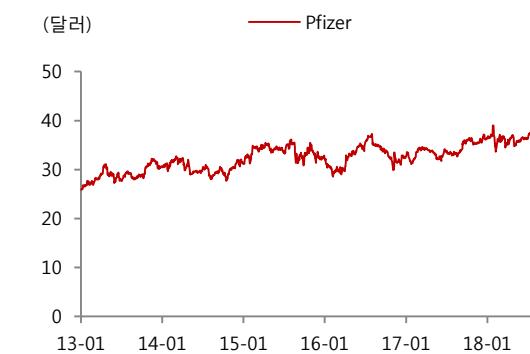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SK 증권

Novartis의 주가추이



자료: Bloomberg, SK 증권

Pfizer의 주가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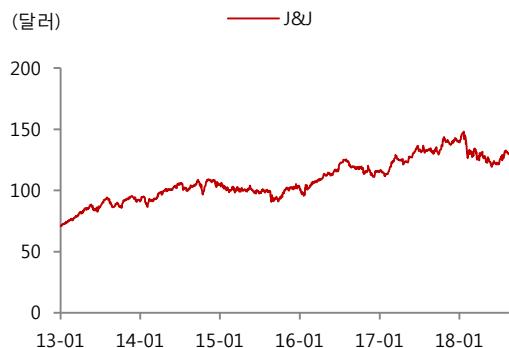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SK 증권

Compliance Notice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자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자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J&J의 주가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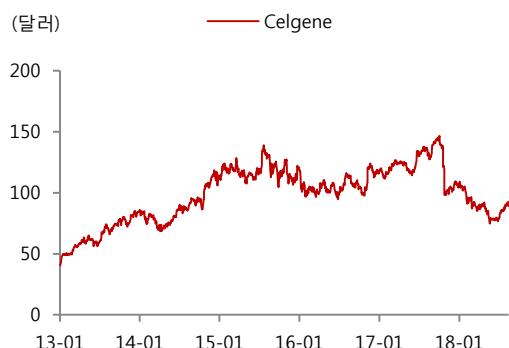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AstraZeneca의 주가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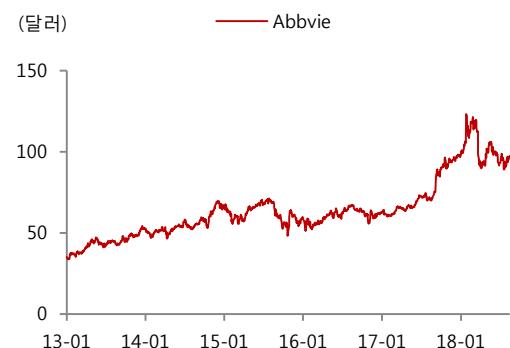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Celgene 주가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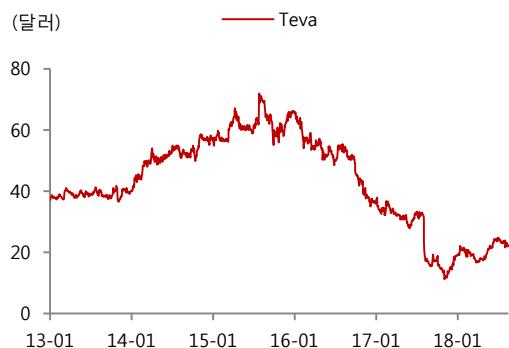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AbbVie 주가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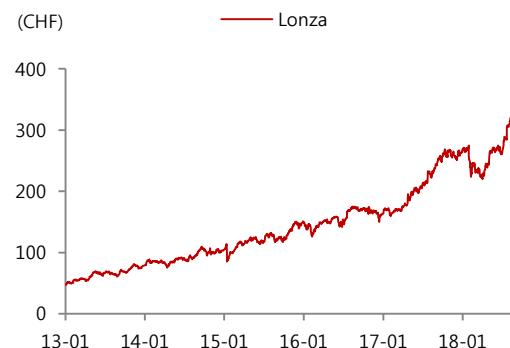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Teva의 주가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Lonza의 주가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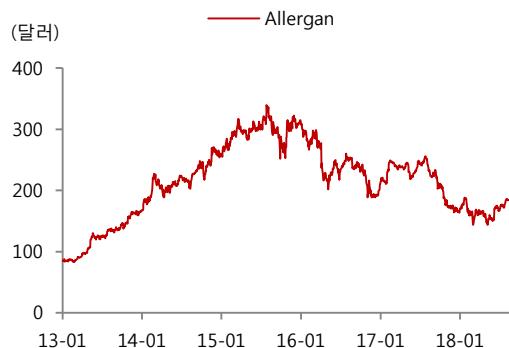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이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자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자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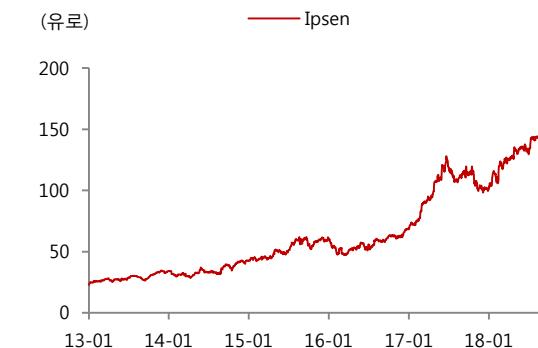


Allergan의 주가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Ipsen의 주가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이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자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자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